



1/X 바깥 뜰 통로 구역

1/1 바깥 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
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.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, 두께가 한 장대로, 높이가 한 장대였다 (40:5).

1/2 바깥 뜰로 올라가는 계단
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,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, 길이가 한 장대였다 (40:6).

1/3 바깥 뜰로 들어가는 계단
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,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, 길이가 한 장대였다 (40:6).

1/4 문지기 방

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,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, 너비가 한 장대였다 (40:7).
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셋씩 있었다. 그 세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, 양쪽에 있는 벽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(40:10).
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, 높이가 한 자, 두께도 한 자였다. 방들은 그들이 다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여섯 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. 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, 너비가 스물다섯 자였다.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(40:12-13).

1/5 바깥 벽으로 연결되는 문지기 방들 사이의 벽

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다섯 자이고,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 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(40:7).
1/6 현관의 벽
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, 길이가 여덟 자요,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(40:8-9).
1/7 벽 기둥
길이가 여덟 자요, 그 기둥들의 두께가 두 자였다.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(40:9).
4/7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
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, 그 두께가 두 자였다.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여섯 자이고,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일곱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(40:16).

에스겔서를 기준으로 그린 3차 성전 (또는 에스겔의 성전)

이 성전의 설계도는 에스겔서 40-43을 기준으로 했으며, 성서의 구절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유대교의 문헌 (라쉬/미쉬나)를 기준으로 했습니다. 이 설계도는 The ArtScroll Tanach Series를 한글화 한 것입니다. 미국의 특허 기준에 따라서 17년간 특허가 유지되는데, 이 설계도 그림은 1980년도에 들어져 특허 사용기간이 지난으로 한글화해서 업로드 합니다. 혹 있을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하여 출판사도록 다시 문의하였으나,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. 특허의 문제로 사용제한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.

1/8 문 어귀/문통로

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, 열 자였고, 그 문 어귀의 길이는 열석 자였다 (40:11).

1/9 칸막이 벽

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, 높이가 한 자, 두께도 한 자였다.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여섯 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(40:12).

* 위의 바깥 뜰로 연결되는 통로 구역의 성경 구절은 갤 40:6-16을 인용하였다. 갤 40:6-16은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설명인데, 북쪽을 향한 문 (40:20-22)이나, 남쪽을 향한 문 (40:24-26)의 구조도 마찬가지의 형태를 하고 있다.

2/X 안뜰 통로 구역

2/1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

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고, 랍비 라쉬의 설명에 근거함

2/2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

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(40:31).

2/3 안뜰로 들어가는 통로

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. 그가 남쪽 문을 재니,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(40:28).

2/4 문지기 방

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.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. 그 문간도 길이는 쉰 자요,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(40:29).

2/5 문지기 방과 현관 사이의 벽

2/6 현관의 벽

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. 그 문간도 길이는 쉰 자요,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(40:29). 그 대문의 벽은 바깥 뜰로 나 있고 (40:31).

2/7 벽 기둥

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(40:29).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(40:31).

2/8 통로

2/9 칸막이 벽

2/10 아치 모양의 방

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, 길이는 스물다섯 자요, 너비는 다섯 자였다 (40:30).

* 위의 안뜰로 연결되는 통로 구역의 성경 구절은 갤 40:27-37을 기준으로 하였다.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갤 40:6-16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. 갤 40:27-37은 남쪽 문 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 동쪽과 북쪽 문도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설명은 각각 갤 40:32-34 (동쪽), 갤 40:35-37 (북쪽)을 참고하면 된다.

3/X 안뜰

3/1 번체물을 씻는 방

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, 그 방은 번체물을 씻는 곳이었다 (40:38).

또 둘을 꺾어서 만든 것으로서 번체물을 바칠 때에 쓰는 상이 넷이 있는데, 각 상의 길이는 한 자 반이요, 너비도 한 자 반이며, 높이는 한 자였다. 그 위에 번체와 희생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. 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,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(40:42-43).

3/2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, 성전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방

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,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.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. “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(40:44-45).

3/3 제단 일 맡은 제사장들의 방

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.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,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(40:46).

3/4 안뜰 담

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,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. 동쪽에서 들어오면, 빙 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(42:12).

4/X 성전

4/1 성전의 동쪽 벽

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,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,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다섯 자였다. 문 어귀의 너비는 열넉 자이고 문의 양 옆 벽의 두께는 석 자였다 (40:48).

4/2 안뜰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

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자였고, 길이가 열한 자요,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(40:49).

4/3 문 통로

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열 자이고, 그 문의 통로 옆의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다섯 자였다 (41:2).

4/4 기둥들

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(40:49).

4/5 벽

4/6 성소로 연결되는 통로

그가 성소를 재니, 길이가 사십 자요, 너비가 스무 자였다 (40:1-2).

4/7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

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, 그 두께가 두 자였다.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여섯 자이고,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일곱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(40:16).

자였다 (41:3)

4/8 성전 벽

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, 두께가 여섯 자였다 (41:5).

4/9 성전 결방

성전에는 삼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, 너비가 각각 네 자였다. 그 결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삼 층을 이루고 있으며, 중마다 방이 서른 개씩 있었다. 그런데 그 결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,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. 그들에 있는 결방들은,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. 이 결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.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(40:5-7).

4/11 성전 북쪽과 남쪽의 벽

이 벽의 두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.

4/12 걸방들 사이의 벽

4/13 성전의 북쪽, 남쪽, 그리고 서쪽의 결방들을 둘러싸는 바깥 벽
내가 또 보니,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, 곧 결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. 그 높이는 한 장대인 여섯 자였다. 결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, 그 두께가 다섯 자였다 (41:8-9).

4/14 성전 앞(동쪽)에서 위, 서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

4/15 성전 위에서 내려오는 (서쪽으로 동쪽으로) 경사로

4/16 성전의 바깥 벽

4/14/15/16은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으나, 미시나의 미도트(מִדּוֹת) 4:5,7에 근거하였다.

4/17 빙 터

성전의 결방들 밖에는 빙 터가 있는데 (41:9).

4/18 칼 보관 창고

아마도 갤 41:14-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백 자였다 (41:14)-에서 말하는 징소와 같은 징소일 것으로 생각되며, 미시나의 미도트 4:7에 근거하였다.

4/19 결방 건물의 문

그 결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쪽으로 났는데,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,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. 둘러 있는 이 빙 터의 너비는 다섯 자였다 (41:11).

5/X 서쪽의 방들

5/1 북쪽과 남쪽 방들의 벽들

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 뜰로 나가서,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,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고, 또 하나는 북쪽 건물과 바깥 뜰의 맞은쪽에는, 삼 층으로 된 닉라이 있었다 (42:1,3).

5/2 연결 통로 (1)

5/3 연결 통로 (2)

또 그 방들 앞에는,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, 그 너비가 열 자요, 그 길이가 백 자였다.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(42:4).

5/4 성소와 방들 사이의 공간

뜰을 둘러싼 벽 바깥 뜰에서 시작되었다. 건물 앞 빙 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(42:10).

5/5 방들과 남/북 벽 사이의 공간

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, 길이가 백 자이고, 너비가 쉰 자였다 (42:2).

5/6 바깥 뜰의 서쪽 벽과 방들 사이의 공간

이 방들은 아래층에서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, 바깥 뜰에서 그리 둘러보게 되어 있었다 (42:9).

5/7 바깥 뜰 쪽으로 난 문들

이 두 문들은 성경에는 오지 않았지만, 라쉬의 견해를 따랐다.

6/X 동쪽의 방들

라쉬의 견해에 의하면 동쪽 방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.

6/1 북쪽과 남쪽 방들의 벽들

6/2 안뜰로 향하는 통로

6/3 방들과 바깥 뜰의 동쪽 벽 사이의 공간

6/4 방들과 남/북 벽 사이의 공간

6/5 바깥 뜰 쪽으로 난 문들

이 두 문들은 성경에는 오지 않았지만, 라쉬의 견해를 따랐다.

제단

자로 잔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.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,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.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, 높이가 한 뼘 되는 터이 있는데,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.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, 너비는 한 자이다.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자요, 너비는 한 자이다. 그 제단 화덕은 길이는 네 자요,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뿐이 네 개 솟아 있다.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열두 자요, 너비도 열두 자서, 사면으로 네모가 빛난다.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열두 자로서, 사면으로 네모가 반